

「기촉법」 부활... 건설업계 구조조정 탄력 받나

조 철 현 |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 차장

건설업계가 떨고 있다. 또 한 차례 구조조정이라는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채권은행의 신용 위험 평가를 통해 6월 중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업계는 이를 '4차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옥석 가리기가 건설업계의 본격적인 워크아웃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금융권의 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는 이미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채권은행들이 신용 위험 평가에서 많은 수의 건설업체들에게 구조조정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힘을 받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건설사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전체가 금융권의 구조조정 예고에 바짝 긴장하는 이

유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특히,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되살아나면서 구조조정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기촉법」 부재 상태에서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은 워크아웃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법정관리로 직행했다.

새로 발효된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의 75% 동의(채권액 기준)만 있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한시법이었던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돼 올해 들어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해를 줄였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촉법」이 부활된 데 이어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작업에 본격 나서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신용평가 결과 발표 임박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이미 대출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2,000여 곳의 신용 위험 평가를 끝내고 구조조정 대상을 추려내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가 얼마나 포함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채권은행들은 6월 중에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신용 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고, D등급 기업은 회생 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거나 퇴출된다.

경영 정보

지난해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985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를 내린 결과 총 16개 건설사(C등급 9곳, D등급 7곳)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채권은행들은 '경영 지원'에 무게를 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 평가의 신뢰성이 논란에 휩싸인 데다 정부도 강한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등 분위기가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심은 구조조정 대상에 모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선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난해 B등급을 받아 구조조정을 면한 건설업체라도 올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신용 평가에서 A, B등급 판정을 받았던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에서 어떤 건설업체가 C, D등급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LIG그룹 등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에 뒤통수를 맞은 은행들이 대기업 부실 계열 건설사의 신용 위험 평가에서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버리고 있

어서다. 이와 관련, 권영중 채권금융 기관 조정위원회 국장은 최근 "대그룹 계열 건설사들은 그동안 그룹의 지원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왔다"며, "그룹 계열 사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에 가점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모기업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일지라도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BBB급 이하이면 자칫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BBB급과 BBB-급인 대기업 계열 건설사로는 K건설, D건설, 또 다른 K건설, C건설 등이 있다. 심지어 A-급도 일부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소문도 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임원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요즘 어렵지 않은 건설사가 없다"며 "실적 부진이 두드러진 20개 안팎의 건설사가 새로 '살생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얘기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올해 새로 선정될 업체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

원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아질 수록 은행의 충당금 부담도 커진다"며, "채권 은행들이 시장 충격과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도난 건설사는 총 28개로 전달(14개)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올해 1~3월 평균 부도업체 수(18개)보다도 64% 늘었다. 부도 건설사는 지난 1월 17개에서 2월 23개, 3월 14개 등이다.

일반(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부도업체가 지난 1월과 2월 각각 8개사에서 3월에는 1개사로 줄었다가 4월 들어 7개사로 다시 늘면서 올 들어 4개월 간 총 24개사가 부도났다. 이는 지난해(22개사)에 비해 8.3% 늘어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는 1월 9개사, 2월 15개사, 3월 13개사로 다소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 달에는 21개사로 늘면서 전달 대비 40% 가량 증가하였다.

PF 대출 만기와 '6월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건설업계 연쇄 도산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는 우려도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25조원(은행권 15조원, 비은행권 10조원)에 달한다. 이 중 14

조원 가량이 5~6월에 집중돼 있다. 실제 총 6조 1,000억원의 PF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5, 6월 두 달 간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 역시 이 기간 1조원 가량의 PF 대출 만기가 기다리고 있다.

저축은행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은 2분기 만기 도래하는 PF 대출이 1,000억원에 이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 역시 1,000억원 안팎의 PF 대출 만기가 2분기에 몰려 있다. 건설업계에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이유다. 특히, 최근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행으로 PF 대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권 내에선 만기 연장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은 반면 은행권들의 회수 의지는

여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총 3조 5,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가운데 1조 5,000억원은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저축은행 PF 담당자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거의 해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다각화하지 못한 채 주택사업에 편중된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도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책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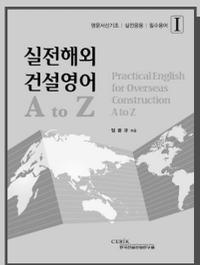
업계에서는 건설업체의 퇴출이 계속될 경우 주택 공급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 장비, 인력, 자재 등 연관 산업의 어려움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 앞서 현금 흐름 방식 개선 등 시스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은 "건설사 구조조정이 실시되더라도 정부와 금융권이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F 대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금융권도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대출만 하고 지급 보증, 책임 완공 보증 등으로 안전장치를 하면서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건설업계에만 부담을 떠맡기는 구조가 문제"라며, "약순환을 끊으려면 건설사들이 빚보증을 서지 말고 은행도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지난해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